

삼보컴퓨터

# 이용태 회장

삼보컴퓨터 이용태 회장은 우리나라에 컴퓨터를 처음 도입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마도 그래서 최근의 컴퓨터 산업이 누리고 있는 호황을 바라보는 이 회장의 감회는 그만큼 남다를 것이다. 국내 컴퓨터 산업의 산 증인인 이용태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의 역사와 21세기 전망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Q**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인터넷 관련 기업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두루넷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좋은 반응을 얻는 등 관련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LAN, Server 등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산업도 동반 성장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60년대 말 미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 정보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던 회장님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70년대 초에 키스트에서 전자계산기 국산화 연구실을 만들었을 때가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한국이 단군 이래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역설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삼보컴퓨터의 탄생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언론에

서도 민간에서도 다 정보화 사회가 왔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증권 시장에서는 관련 주식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Q** 정보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세계정보통신 산업 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도 최근 우리나라를 정보통신대국으로 성장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기업은 정보를 산업화하는 기업과 산업을 정보화하는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정보산업이고 후자는 기업 스스로의 정보화 노력입니다. 우수한 정보산업이 벤처기업의 형태로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기업의 정보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정보화, 특히 인터넷의 이용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할 일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거래를 전자화 해서 전자 상거래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회사 자체를 정보화 하는 것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Q** 회장님께서도 우리 나라에 PC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중화시킨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컴퓨터 산업의 산 증인이신 셈이지요. 회장님께서 설립하신 삼보컴퓨터는 바로 우리나라 PC 산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삼보컴퓨터는 현재 국내 컴퓨터 전문 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가형 컴퓨터 e머신즈를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PC에 대한 애착과 중요성을 듣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사람의 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발이 없는 것처럼 불편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그 유용성으로 인하여 컴퓨터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형태로 싼값으로 정보를 얻게 되는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PC나 휴대용 컴퓨터는 모든 사람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삼보컴퓨터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요즘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기술이 있어도 자금을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삼보컴퓨터도 초창기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장님께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도 그러한 시정을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더 강화해서 미국의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기업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삼보컴퓨터를 만들 때만 해도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을 구하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보컴퓨터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변화라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국의 나스닥처럼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스닥에서는 부채를 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미래의 잠재력에 대하여 엄청난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도 이러한 평가 방식만 도입이 되면 아이디어와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개인용 컴퓨터는 초기 단순 계산 기능의 PC에서 최근의 멀티미디어 PC까지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미래의 PC는 어떤 형태로 변하고 우리



대담자 : 오해석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교수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의 자문교수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연구교수로 활동중이다.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앞으로도 무어의 법칙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상 소설가들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도나 전기를 돈 걱정을 별로 하지 않고 쓰는 것처럼 컴퓨터와 인터넷도 거의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시대는 5년 내로 도달할 것입니다.

**Q** 개인적인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회사 경영에 신경 쓰시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평소 회장님만이 갖고 계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정보화사회 독자를 위해 소개해 주시죠.

세상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군대에 간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한다면 열흘도 배겨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신 단련의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것을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군대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회사를 수 없이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은 왜 골치 아픈 일을 사서 하느냐고 나무랍니다. 그때 나는 골치 아프고 싶어서 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우냐 재미스러우냐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Q** 다가오는 21세기는 인터넷 등으로 전세계가 네트워킹으로 연결되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보와 지식이 경제 활동의 핵심 요소가 될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국가 모두 지금부터 정보화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업계 원로로서 후배 기업인들에게 고언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은 정부입니다. 대만이 하드웨어 생산 기지가 되고, 인도가 소프트웨어의 생산 기지가 되고, 싱가포르가 통신의 모범 국가가 된 것은 모두 정부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뒤따라가는 나라의 약점은 미래를 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끌어가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부의 분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업을 손질하여 개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완전히 틀어박기 때문에 기업을 해산하고 다시 만든다는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